



អង្គការពិភពពន្លឺនៃជីវិត
Light of Life Organization



To Care for Hope

감사합니다!!



BOH를 섬기는 캄보디아 브릿지 빌더들

저희와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11월에 코로나로 인해 긴 시간 문을 닫아야 했던 BOH 학교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돌아오지는 못했습니다. 아직도 시애틀에 일자리

가 부족해 부모들의 고향에 머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시애틀 공항이 다시 열려 아이들이 학교에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약 110명의 학생들과 92가정이 저희 BOH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16명의 캄보디아인 스태프들과 5명의 한국인 선교사들이 즐겁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Christmas Celebration 2021



School Opening Ceremony for 2022

지난해 크리스마스 행사는 특별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약 2년 동안 제대로 된 행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LCM의 또 다른 사역인 '드림 도서관'에서 주민들과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들에게는 감사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사역이 지금까지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전 세계에 흩어져있는 후원자들과 우리를 돌보시는 하늘 아버지의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올 해부터 저희 BOH에는 특별한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예전에 WEC 인터네셔널 소속이었을 때는 커뮤니티케어 사역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 동안 소속 단체가 바뀌면서 학교를 안정화 하느라 이 중요한 일을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보살피는 일에 부모와 협력하는 일을 더 미룰 수 없어서 올 해부터 부모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일이 가능하도록 스태프들의 역할에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사오피어'를 '빠쨌'과 함께 커뮤니티 케어에 주력하게 했습니다. LCM 선교사인 윤영철 선교사도 이 일에 함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오피어'가 오랫동안 담당했던 주방장 역할을 '소키어'가 맞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동안 비어있었던 1학년 작은 반의 보조 교사로 '스레이 꼬어'를 영입하게 되었습니다. 꼬마클럽을 보조하는 일도 하게 될 것입니다. 꼬마클럽 장으로 일했던 '니따'가 오후반 교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새 학생들



'위쯔까'는 15살입니다. 그런데 1학년에 입학했습니다. 부모들의 사정 때문에 지금까지 공부 할 수 없었다 했습니다. 저희 모두는 '위쯔까'가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로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기도해 왔던 ‘축구타임’ 프로그램을 1월 29일부터 시작했습니다. 23명의 남녀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경기를 하는 동안 아이들의 태도는 진지했습니다. 가끔씩 울리는 함성 소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2월 25일 두 번째 ‘축구타임’에는 더 많은 아이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미 BOH를 거쳐간 아이들도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지 10명이나 참석해서

즐거움을 더 했습니다. 소망을 이어가는 또 다른 다리를 만든 셈입니다.

체육 선생님이 ‘윤영철’ 선교사의 헌신으로 시작된 일입니다.



하루는 4년째 BOH에서 일하고 있는 ‘뽕’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년 신학기가 되면 학교에 적응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생깁니다. 친구들과 쉽게 싸우고 수업 시간에 졸고 선생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돕는 일이 쉽지 않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BOH 선생님들은 그 방법을 압니다. 들어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의 소리를 계속해서 듣다보면 아이들 대부분이 이미 불우한 가정환경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학교에 왔다는 사실을 알게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주고 기다려다 보면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우리가 BOH에서 무슨 일을 하든 우리의 목표는 선명합니다. 아이들과 부모들이 하늘 아버지를 더 가깝게 경험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위로하시는 분이니까요. 그러면 BOH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찾아가지 않을까요?

이 일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도 부탁드립니다.

BOH를 섬기는 이 일동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가끔씩 블로그에 새 소식도 올리려합니다.]



‘웨이’는 6살입니다. 엄마의 간곡한 부탁으로 학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웨이’가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떼양’ 선생님이 ‘웨이’만을 위해 오후 반을 따로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큰 헌신을 결정한 것입니다.

캄보디아는 특별한 보살핌을 필요로하는 아이들이 공부할 기회는 얻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희 BOH는 앞으로 더 많은 ‘웨이’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